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7>

日 요코하마 구도심 재개발

요코하마=글·사진 윤현석 기자

초고층 빌딩, 근대건축물, 화려한 쇼핑센터, 아기자기한 옛 점포들, 향만과 맞닿은 공원, 멋진 디자인의 공공시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한 데 묶어 낸 도보길이 있는 요코하마의 신도심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의 일본인, 한국·미국·유럽 등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도 평일에도 북적일 정도다. 간나이, 모토마치, 아바테, 미나토마리아 21지구, JR(Japan Rail) 요코하마역 주변 등 해안과 마주하고 있는 이들 지역은 요코하마의 심장이자 도시경쟁력의 상징인 셈이다.

그러나 요코하마 역시 구도심이 있다. 개항 전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던 요코하마에 외국문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요코하마는 급속히 그 면적을 넓혀갔다. 1950년 이후 매년 10만명 이상 인구가 늘었고 1970년대 180만명에 불과했던 요코하마의 인구는 지난 1일 현재 368만 7382명(158만3029세대)으로 급증이 되면서 도시 규모 역시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늘어난 인구는 현재 JR노선의 바깥쪽, 즉 향만에서 비교적 떨어진 곳에 판자집을 지어 정착했으며, 그것이 지금의 구도심이다. 신도심과는 달리 도로는 좁고, 집은 다닥다닥 붙어 구름지까지 침범하고, 빈 집이나 점포도 눈에 띄는 평범한 지역의 고난(港南)구 가미오카(上大岡) 지역을 찾은 것은

지난달 22일 오후.

차 1대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과 얹히고 설킨 전깃줄, 2~3층 노후주택 등이 이어지는 외형은 광주의 골목길과 유사했다.

하지만 문제는 자동차였다. 자동차들로 꽂아 있는 광주의 골목길과는 달리 고난구의 골목길에는 자동차가 없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잠시 정차하는 차량일 뿐이다. 폭 3m 정도 되는 차도는 S자형으로 속도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중간 중간에 점포나 긴급 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었다. 폭 2m 이상의 보도가 그 양쪽에 나 있으며 걷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었다. 자동차를 불편하게 하고 걷는 이는 편하게 도로를 구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은 넓은 도로와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면에서 신도심에 미할 수 없이 뒤쳐져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직접 만난 지역민들은 이 같은 도시 내 불균형에 대해 큰 불만이 없었으며, 오히려 가까운 거리에 좋은 시설들을 찾을 수 있는 요코하마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파출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가와카미(여·52)씨는 “요코하마에 사는 것이 너무나 만족스럽다”며 “살고 있는 주택은 좀 낡았으나 범죄도 거의 없고 다른 지역에 비해 불거리도 꽤 있다”고 말했다. 5평 남짓의 산보(三寶)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60대의 여성은 “규수가 고향이지만 다양한 문화가 넘치고 생활이 편리한 요코하마가 좋다”며 “요코하마가 창조도시로 나아가고 있어 외국에서도 배우러 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개발에 대한 욕구보다는 쇠락한 구도심 자체를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차요원으로 일하는 나카무라(66)씨는 “다른 도시에 대

해서는 잘 모르지만 요코하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나번 직장을 정년퇴임하고 두 번째 직업으로 이 일을 선택했으며, 이 모든 상황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차권 내민 고객에서 서둘러 차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러주며 바쁘게 뛰어다녔다.

단독주택지의 내부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구름지에 위치한 가나가와(神奈川)구 가타쿠라(片倉)지역을 찾았다. 이 지역은 요코하마의 도시 확장 과정에서 갈 곳 없는 타 지역민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따라서 도로는 좁고 주택도 건축한 지 40년이 지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합필(부지가 작은 주택지를 합치는 행위)를 통해 3~5층 규모의 신식 건축물이 들어선 곳도 있었지만 노후 주택지 속에 가름 섞여 있는 것에 불과했다.

주차장을 마련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일본의 주차정책은 이 곳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각 주택에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주택 내 빈 공간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켜 공공공간인 도로를 점유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부족해지자 이번에는 빈 집이나 공터를 이용해 주택지 내 공공주차장을 마련하고 이를 분양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광주발전연구원 김기곤 박사는 “좁고 다닥다닥 건물들이 붙어있지만 거리는 깔끔했고 쾌적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며

“차량에 대한 대책 하나가 지역 자체를 변화시키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지역에서 2대째 살고 있다는 하마다(53)씨는 “잘 보면 알겠으나 지역주민들은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주차공간에 맞춰 차량을 구입할 정

도”라며 “최근에는 조그만 찜지공원에서 학교에 이르기까지 공공투자가 잘 이뤄지고 있어 사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말했다.

구름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택들의 높이 차이가 현저하지만 그 중간에 찜지공원이나 주차장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이 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또 주택지 가운데에는 학교가 있었다. 그 학교 옆에는 가타쿠라가타공원이 있었으며, 오후 5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여 축구와 야구를 하며 즐기고 있었다. 학교가 주택지의 중심이 되며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노는 공간을 10분 이내의 거리에 두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공원이 주택지와 공간적으로 분리돼 강제적으로 삼입된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도 광주지역의 주택과 공원은 다른 양상이었다.

특히 요코하마를 비롯한 일본의 각 도시는 역세권 등 경제성이 있는 경우만을 재개발 대상으로 하고, 대부분 지역은 주민 스스로 합필에 따른 단독 맨션 건립이나 리모델링 등을 통해 노후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무분별하게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주민들의 이 같은 자구 노력에 행정기관은 공원이나 주차장을 조성해주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개발 대신 개선” 주민 자구노력 최우선



요코하마 구도심의 좁은 골목길에는 주차된 차량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주민 스스로 골목길을 공공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차고지를 별도로 두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구도심 경관을 향상시키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요코하마 구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공원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와 부모.



구도심에서 골목길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절묘하게 주차된 차량.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Since 1981 **i는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이번엔 무슨
어디가 좋을까?

-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 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빔 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와인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 •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따뜻한 봄날 즐거운 영화함 함께 하세요

상무점 **하남점**

1관 별관 내부수리중	1관 달빛 길어올리기 (15세)
2관 별관 내부수리중	2관 월드 인베이전 (12세)
3관 별관 내부수리중	3관 킹스 스피치 (12세)
4관 별관 내부수리중	4관 비스틀리 (12세) / 블랙스완 (18세)
5관 사랑이 무서워 (15세)	5관 레드 라이딩 후드 (15세)
6관 블랙스완 (18세) / 아이엠넬버포 (12세)	6관 월드 인베이전 (12세)
7관 킹스 스피치 (12세)	7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 파이터 (15세)
8관 웨이 백 (12세) / 파이터 (15세)	8관 아이엠넬버포 (12세) / 컨트롤러 (12세) / 웨이백 (12세)
9관 레드 라이딩 후드 (15세)	9관 아이들 (15세) / 조선명탐정 (12세)
10관 월드 인베이전 (12세)	10관 사랑이 무서워 (15세)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M관 킹스 스피치 (12세) 최고급관
2관 블랙스완 (18세)
3관 웨이 백 (12세)
4관 그모닝 에브리원 (15세)
5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6관 달빛 길어올리기 (15세) / 사랑이무서워 (15세)
7관 레드 라이딩 후드 (15세)
8관 비스틀리 (12세)
9관 월드 인베이전 (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2011년 팍타지의 세대교체
위대한 문명에 맞선 야수의 사투가 시작된다!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킹스 스피치 (12세)
2관 비스틀리 (12세)
3관 블랙스완 (18세) / 사랑이무서워 (15세)
4관 아이들 (15세)
5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6관 달빛 길어올리기 (15세)
7관 월드 인베이전 (12세) / 파이터 (15세)
8관 레드 라이딩 후드 (15세)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

